

완도군, 전남 최초 여객선 무료 와이파이 제공

완도군-(주)KT 업무 협약 체결...2023년 1월 서비스 개통 12월까지 장비 설치·연간 데이터 이용료 2천7백만원 지원

완도군과 (주)KT(대표이사 구현모)는 11월 21일 완도에서 운항되고 있는 전체 여객선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 체결로 (주)KT에서는 12월까지 여객선에 무료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고, 완도군에서는 연간 데이터 이용료 2천7백만원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료 와이파이 설치 대상은 완도군 섬 지역을 운항하고 있는 7개 노선, 17척의 여객선이며, 무료 와이파이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이용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에는 와이파

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섬 지역의 중요한 교통 수단인 여객선에는 와이파이를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내년부터는 여객선 내 어느 곳에서든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주)KT와 협력하여 섬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정보 이용 격차를 완화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은 현재까지 관광지과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 96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준을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성전면 달빛한옥마을 29세대 LPG 집단공급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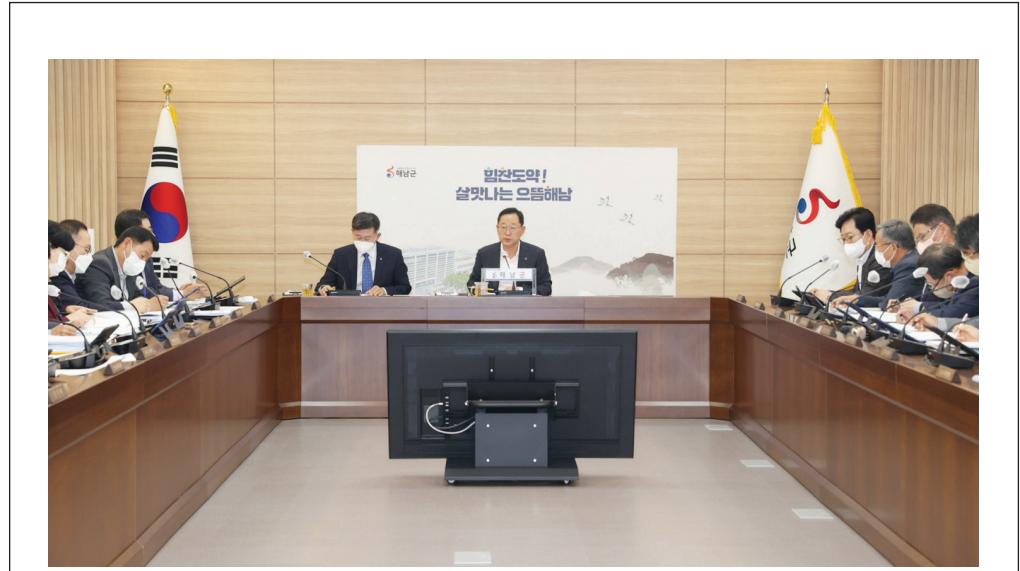
강진군은 지난 11일, 대표적인 푸소 체험마을인 성전면 달빛한옥마을의 LPG배관망 구축 사업을 완료해 마을주민 29세대가 도시가스 수준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LPG를 공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3월 전라남도 사업에 선정되어 4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약 3억4,900만 원이 투입해 9월 말에 착공해 이만달 준공을 마쳤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취사 및 난방시설에 LPG 또는 등유를 사용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마을 유희부지 등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세대에 LPG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LPG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가스를 차단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가스누설경보기와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레인지 밸브를 닫는 타이머를 설치해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가스 사용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푸소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은 물론, 푸소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을 제공해 강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김양식 갯벌 선제대응으로 고품질 김생산 만전"

정례회의 통해 김발관리 철저 당부,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

명현관 해남군수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김양식 해역에 발생하고 있는 붉은갯벌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품질 김생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남 일부 김양식 해역에 붉은 갯벌이 발생하면서 군은 해양수산과학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 지도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월말 생산을 시작한 2023년산 물김은 11월 중순까지 생산량은 5,232톤, 위판고는 49억 3,900여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361톤, 6억1,000여만원

증가한 규모로 올해 김양식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명군수는 "붉은 갯벌이 11~12월 수온정체기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해 품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매뉴얼 제작과 시행, 물 부족에 대비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매일시장 개장을 앞둔 상인교육 등 마인드제고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논의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진도개 복지 지원사업 추진

6,000여만원 투입...사료비 등 보호료 지원

진도군이 노령 진도개를 대상으로 진도개 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선진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 6,000여만원을 투입, 노령견을 대상으로 진도개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진도개 복지 지원사업은 농가 방문 현지 확인 등 진도개 실태조사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진도개 중 생후 7살 이상인 노령견을 대상으로 1두당 19만원을 300여두에게 사료비 등 보호료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편성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은 동물복지·보호 실현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명예동물보호감시원 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복지 문화 정착 기틀 마련과 진도개 보호·복지를 위한 지원 확대와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관산 삼산방조제 해상일원 풍력발전 주민설명회

장흥군은 지난 18일 관산을 다목적회관에서 사업자 한양정공(주) 주관으로 관산 삼산 해상일원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작년 5월 산업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주민 수용성 부족과 한전선로연계 불확실로 불허가 되어 금년 8월 3MW급 16기, 96MW 풍력발전 사업을 산업부에 재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 수용성 조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예정지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 기업에서 사업 개요, 추진 절차, 일정 등을 설명했으며, 특히 공사 진행 시 어업인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 열띤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에 대한 군 방침을 신중히 결정하여 산업부(전기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